

〈칠성풀이〉 유형 서사무가에 내재된 희생의례와 대속자

이 주 영*

1. 서론
2. 이본 간 서사구성 비교
3. 전가되는 희생과 계모의 대속
4. 결론

1. 서론

신화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삶의 모습이 서사적 형태로 담겨 있다. 삶과 죽음과 같은 생물로서의 본질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남녀의 성별, 아이와 어른, 개인과 마을, 나라와 같은 공동체를 담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주제들을 품고 있는 신화는 그 서사의 소재로서 혈연과 가족 관계를 상당히 자주 사용하고 있다.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건국신화도 부자관계나 부부관계를 중심에 놓고 있으며 무조신(巫祖神)이나 저승신이 되는 바리공주나 당금애기도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 서사의 중심이다.

가족 관계는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마주치는 기본적인 것이며 동시에 혈연으로 맺어진 가장 끈끈한 사이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관계 구축과 파악을 쉽게 하게 해준다. 가족 관계의 구성이나 파탄을 통해 신화의 주제가 선명하게 전달될 수 있다. 신화가 주제를 드러내는 서사적 소재로 가족 관계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

* 서정대학교 강사.

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화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계기를 불러일으킨다. 가족이 이야기의 핵심이 된다고 하여 그것을 가족에 관한 이야기로만 해석하는 것은 표층적 차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족에 관한 이야기 너머에 존재할지도 모를 숨어있는 심층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신화'¹⁾로 다루어지는 서사무가 <칠성풀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무속에서 칠성은 제석처럼 인간의 수명장수를 관장하는 신격이며 독경하는 경객(經客)이 더 숭앙하면서 이 역시 자손을 번성하게 하는 역할을 갖는다.²⁾ 계모와 전처 자식들 간의 이야기가 서사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그 신직(神職)이 수명장수나 자손의 번창이기에 이 서사무가는 가정신화로 해석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서사의 소재와 서사 외적 신직이 수명, 자손의 번창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관점을 대입해보기는 쉽지 않다.

이런 까닭에 <칠성풀이>에 대한 기존의 접근 역시 대개 가정신화로 해석해 왔다. 서대석은 동일 서사 유형으로 묶을 수 있는 관북지방의 <살풀이>, 관서지방의 <성신굿>, 호남지역의 <칠성풀이>, 제주도의 <문전풀이>를 한 데 다루면서 계모담 유형이며 부정적 수직관계에서 형성된 이야기로 보았다. 그는 이 이야기가 가족원의 결손과 이를 보완하는 과정에서 계약관계의 부부관계와 혈연관계의 부자관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부자관계를 우선시함으로써 부계 혈연을 중시하는 가부장제 가족으로 변천한 한국의 상황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추측했다. 신성성의 측면에서는 지신이나 수신을 신앙하는 생모(生母)의 집단과 천신을 숭앙하는 계모(繼母)의 집단 사이의 갈등이라고도 보았다.³⁾ 한국신화에 보이는 가족구성체계를 간단하게 정리한 김대숙도 <칠성풀이>를 수직적인 부자관계에 중심축을 두고 가족 외부로부터 갈등이 야기되는 계열로 분류했다.⁴⁾ 정주혜 역시 계모라는 외부자로부터 야기된 위

1) 서대석, 2002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365면. <칠성풀이>를 가정의 탄생 및 가정의 시련과 극복과정을 보여주는 가정신화로 언급한 서대석의 견해에 따라 본고에서도 가정신화로 지칭한다.

2)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편, 2001 『한국 민속의 세계』 8권,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37면.

3) 서대석, 앞의 책, 341-365면.

4) 김대숙, 1999 『한국신화의 가족구성체계 연구 1: 비교신화 연구를 위한 시론』 『평택대 논

기와 극복의 서사라고 보았다.⁵⁾

홍나래의 경우 신성성 파악을 서대석과 달리 천부지모형(天父地母型)으로 파악했으나 가정신화라는 면에서는 같은 견해를 보인다. 동일한 심부담(尋父談)을 가진 것을 근거로 〈제석본풀이〉와 비교했는데, 〈칠성풀이〉는 그 전반부가 〈제석본풀이〉와 같은 구조이며 〈제석본풀이〉의 내용이 가정을 이룬 후의 문제로 변모된 것이라 주장했다. 그래서 부부간 결합이나 기자치성, 잉태, 출산, 소박 등 인물과 사건이 세속화되고 범위가 가정으로 한정되면서 계모담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논했다.⁶⁾

이원영은 칠 형제를 중심으로 하여 자아 탐색과 자기실현의 과정으로 〈칠성풀이〉를 고찰했는데, 천하국과 지하국, 죽음과 삶이라는 경계를 넘나들며 이룩한 과업을 통해 그것들이 달성됐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자식들이 북두칠성이라는 부계적 계통성과 기자, 수명, 복록, 농사라는 모계적 계통성을 내재한 천지 합일의 신성을 획득하는 이야기이며 동시에 인격의 성숙을 상징한다고 보았다.⁷⁾ 분석심리학적으로 유사하게 접근한 김영희는 서사를 통과의례의 측면에서 살폈다. 어머니를 떠나 통과의례에 동기를 부여하는 아버지와 자애와 위협이라는 모성성의 두 측면인 생모와 계모의 시련을 통해 칠 형제가 정신적인 재탄생, 자기를 실현하도록 인도되었다고 정리했다.⁸⁾

이상의 연구사에서 〈칠성풀이〉는 가정신화라는 점을 기본에 두고 다루어지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문제가 발생한 가정 속에서 자식들의 성장과 자기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논해졌다. 그러나 앞서 설명했듯이 신화는 혈연관계, 가족 관계를 기표로 삼아 주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잦으며, 따라서 〈칠성풀이〉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정신화라는 특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기표가 가진 다른 의미가 없는지 탐색할 필요성도 있다.

문집』 13, 57-58면.

5) 정주혜, 1998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의 대비 연구: 가족관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논문.

6) 홍나래, 1997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7) 이원영, 2010 『칠성풀이 속 경계 초월과 신성 획득의 메커니즘』 『남도민속연구』 21.

8) 김영희, 2015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분석심리학적 해석』 『심성연구』 30(2).

〈칠성풀이〉는 가정신화로서 그에 어울리는 가정의 결손과 위기, 극복이라는 큰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서사 내용이 주로 계모와 전처 자식의 갈등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자관계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 이본관계로 여겨지는 북부지역의 〈살풀이〉나 〈성신굿〉에서는 가정이 회복되는 내용이 없는 점⁹⁾, 무엇보다 계모와 전처 자식들이 서로 죽고 죽이려는 게 자손 번창을 위한 가정신화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인 점에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여지가 있다.

칠형제의 신성은 기자(祈子), 복록(福祿), 수명, 강우(降雨) 등을 폭넓게 관장한다. 많은 자손과 그 자손이 복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신성의 역할과 비교할 때 계모와 전처 자식이 서로 죽이려 한다는 서사는 신격이 가진 기본적인 직능을 설득력 있게 표현하기에 적절치 않다. 그렇다면 그 신성이나 직능의 기원을 기존 연구에서 언급된 지신이나 수신, 또는 천부지모형의 신성 결합에서만 찾을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자료가 하나 있다. 기원전 2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하던 아테네 출신 학자인 아폴로도로스(Apollodoros)가 저술했다고 알려진 『도서관(Bibliothēke)』에 실려 있는 황금양 모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모험에 등장하는 황금양 모피의 기원담인데, 계모의 음모로 인해 전처 자식인 두 남매가 아버지의 손에 의해 제물로 바쳐지기 직전에 친모에게 구해져 황금양을 타고 탈출한다는 이야기이다. 계모가 전처 자식을 죽이기 위해 점술가를 매수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유사한 모습이 보이면서도 신화의 주제가 농사의 풍요로 다른 점이 있어 〈칠성풀이〉와 비교할 여지가 있다.

시공간적 거리, 문화적 차이로 인해 두 자료를 비교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의 유사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계모로 인한

9) 대부분의 자료가 호남과 제주도 지역에서 채록됐으며 이들 자료에서는 친모의 희생이 나타나지만 이는 채록 횡수로 인해 나타난 수집 양상일 수 있다. 지금 북한 땅인 함경도와 평안도에서는 자료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렇게 치우친 자료 채록 양상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조심스럽다. 서대석도 이런 면을 고려한 것인지 〈칠성풀이〉를 한반도 서남부와 북부지역 일원에서 전승되는 서사무가라고 하였다(서대석, 앞의 책, 325면).

피병 또는 가짜 흉년, 계모의 매수, 친부의 전처 자식 살해 시도, 전처 자식의 위기 탈출로 이어지는 서사의 흐름이 매우 유사하다. 이렇게 유사한 서사가 다른 문화적 배경에 다른 신화적 주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비교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글에서는 비교를 위해 먼저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의 이본 간 내용 정리를 통해 서사의 핵심 부분을 정리하고자 한다. 모든 이본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핵심 화소가 무엇인지 드러내고 이를 중심으로 황금양 모피 기원담과 비교하려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주로 계모와 전처 자식 사이의 갈등이 주요 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 화소는 모든 지역에 등장하고 있는 공통 화소이기도 하며 이 갈등의 해소를 통해 서사가 마무리되거나 전처 자식들이 신으로 좌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칠성풀이〉의 핵심 서사인 계모와 전처 자식 사이의 갈등을 중심에 놓고 내용을 분석한 뒤,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신화적 또는 주술적 의미를 황금양 모피 기원담과의 비교를 통해 탐색할 것이다. 나아가 그 신격이 어떤 이유로 기자, 복록, 수명, 강우 등을 관장하는 신성을 갖게 되었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전개할 것이다.

신화에 등장하는 가족관계는 향유층의 세계관을 풀어내는 표현 수단이 될 때가 많다. 신화의 가족 이야기는 세계의 창조, 홍수의 원인 등 거대한 주제를 담아내기도 한다. 지속가능한 적절한 사냥법을 주제로 하는 북미 원주민 톰슨 인디언의 사냥신화 〈사냥꾼과 야생염소〉도 그러한 예이다. 사냥꾼이 야생염소의 털가죽을 몸에 걸쳐 숫염소로 변신했고, 이후 암염소들과 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사냥꾼이 암염소들과 부부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아내인 암염소와 자식인 새끼 염소는 죽이면 안 되고 오로지 처남인 숫염소만 사냥할 수 있다는 규칙이 탄생했다. 이것은 염소 무리의 번식을 고려하는 사냥법에 대한 신화적 가르침이다.¹⁰⁾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 역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유사신화와의 비교를 통해 확장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0)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옮김), 2003 『꿈에서 왕으로』, 동아아시아, 48-58면.

2. 이본 간 서사구성 비교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는 북부와 서남부, 그리고 제주도 지역에 걸쳐 전승되고 있다.¹¹⁾ 북부지역에 전승되는 것들은 인간의 삶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살(煞)을 제거하거나 자손의 명복이나 가정의 태평을 기원하는 굿거리이지만 대상신의 성격이 분명하게 한정되지 않는다.¹²⁾ 이에 비해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것들은 문신(門神)을 중심으로 하지만 조왕신이나 측간신, 올레정쌀지신, 오방토신 등의 본풀이도 겸하여 건물의 여러 장소를 지키는 신들을 불러 모시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리하여 각 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동티를 없애고 가내의 안전과 평화가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했다.¹³⁾

가장 많은 수가 채록된 서남부지역의 것들은 앞서 설명한 대로 자손의 번창과

11)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 채록목록은 다음과 같다.

- 북부지역: 『관북지방무가(추가)』 〈살풀이〉, 함경남도 함흥 강춘옥: 『관서지방무가』 〈성신굿〉, 평안남도 평양 정운학
- 서남부지역: 『한국구비문학대계』 5-4 〈칠성풀이〉, 전라북도 군산 김옥순: 『한국구비문학대계』 5-6 〈칠성풀이〉, 전라북도 정읍 오판선: 『한국구비문학대계』 5-6, 〈칠성풀이〉 전라북도 정읍 서보익: 『한국구비문학대계』 6-8 〈칠성풀이 이야기〉, 전라남도 장성 김순예: 『한국무가집』 1 〈칠성굿〉, 충청남도 부여 이어인년: 『한국무가집』 2 〈칠성굿〉, 전라북도 순창 김야무: 『한국무가집』 3 〈칠성풀이〉, 전라북도 고창 배성녀: 『줄포무악』 〈칠성풀이〉, 전라북도 줄포 박소녀: 『줄포무악』 〈칠성풀이〉, 전라북도 줄포 성씨: 『전북의 무가』 〈칠성풀이〉, 전라북도 비안도 윤말래: 『전북의 무가』 〈칠성풀이〉, 전라북도 정읍 신귀녀: 『전북의 무가』 〈칠성풀이〉, 전라북도 정읍 전금순: 『한국무속지』 〈칠성풀이〉, 전라북도 전주 최문순: 『한국무속지』 〈칠성마지석〉, 전라북도 전주 성화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칠성풀이①〉, 전라북도 부안 박종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칠성풀이②〉, 전라북도 부안 박종환: 『무속신화 칠성풀이의 연구』 〈칠성풀이〉, 충청남도 청양 최진일 소유
- 제주도지역: 『한국무속의 연구』 상 〈문전본푸리〉, 제주도 서귀포 아카마쓰지조·아키바 다카시 채록: 『제주도무속 자료사전』 I 〈문전본풀이〉, 제주도 제주시 현용준 채록: 『남국의 무가』 〈문전본①〉, 제주도 서귀읍 진성기 채록: 『남국의 무가』 〈문전본②〉, 제주도 표선면 진성기 채록: 『남국의 무가』 〈문전본③〉, 제주도 안덕면 진성기 채록: 『한국의 민간신앙』 〈문전본풀이〉, 제주도 서귀읍 장주근 채록

12) 서대석, 앞의 책, 326-328면.

13) 이수자, 1989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61면.

수명장수를 비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서대석의 경우에는 호남지역에 전승되지 않는 성주신화의 기능을 〈칠성풀이〉가 담당하고 있다고 보았다.¹⁴⁾ 또한 충청남도과 호남지역에서 〈제석본풀이〉와 〈칠성풀이〉가 생산과 삶에 관련된 주제를 갖는 서사무가인데¹⁵⁾ 호남지역에서는 〈칠성풀이〉가 더 대표적인 무속신화이다.¹⁶⁾

신격이나 기능을 통해 구분한다면 북부지역의 것들이 그 이외의 지역 것들에 비해 목적이 다르거나 기능이 약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청도와 호남,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것들이 가정의 안녕, 자손의 번창 등 가정을 위한 신화로 그 목적이 분명한 것에 비해 북부지역의 것은 살을 제거하는 등 목적이 다르거나 비슷하더라도 그 신격의 분명하지 않고 약하다. 이렇게 대별되는 기능적 목적은 각 지역의 서사무가의 화소 구성에서도 구별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의 화소별 서사단락은 서대석, 흥나래를 통해 이미 잘 정리된 상태이다. 호남지역 중심으로 전승되는 것들이 가장 화소를 풍부하게 갖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제주도 전승본, 가장 적은 화소로 구성된 것이 북부지역 전승본들이다. 화소가 가장 풍부한 호남지역 전승본의 화소 구성을 정리하고 뒤이어 제주도 전승본과 북부지역 전승본들을 비교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호남지역의 〈칠성풀이〉는 여러 이본들 사이의 화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등장인물의 나이나 이름, 친자 확인 시험의 유무 등이다.

- ① 칠성님과 매화부인이 혼인을 한다.
- ② 칠성님과 매화부인은 아기를 낳지 못하여 기자치성을 드린다.
- ③ 태몽을 꾸다.
- ④ 매화부인이 임신하여 일곱 아들을 출산한다.
- ⑤ 칠성님이 사람이 일곱 자식을 낳았다고 징그럽다면서 매화부인을 소박한다.
- ⑥ 칠성님은 옥녀부인에게 후실장가를 간다.
- ⑦ 매화부인은 일곱 아들을 물에 내다 버려 죽이려 한다.
- ⑧ 초월적 존재가 나타나 꾸짖어 아이들을 키우게 한다.
- ⑨ 성장한 일곱 아들이 놀림을 받고 매화부인에게 아버지의 행방을 묻는다.

14) 서대석, 앞의 책, 351면.

15) 흥나래, 앞의 논문, 71면.

16) 서대석, 앞의 책, 350면.

- ⑩ 일곱 아들이 아버지 칠성님을 찾아 만난다.
- ⑪ 일곱 아들을 떠나보낸 매화부인은 그리움에 죽는다.
- ⑫ 칠성님이 일곱 아들 키우는 재미에 빠져 계모 옥녀부인을 외롭게 한다.
- ⑬ 옥녀부인이 피병을 앓는다.
- ⑭ 칠성님이 옥녀부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문복장이에게 간다.
- ⑮ 옥녀부인이 문복장이를 먼저 매수하여 일곱 아들의 간을 먹어야 낫다는 점괘를 내도록 한다.
- ⑯ 칠성님이 매수된 점괘를 들고 오는데 마중 나간 일곱 아들이 이를 듣고 자신들의 간을 내놓고자 한다.
- ⑰ 칠성님이 간을 가져가기 위해 일곱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금사슴이 나타나 뱃속의 일곱 개의 간을 대신 꺼내라고 한다.
- ⑱ 칠성님이 옥녀부인에게 일곱 개의 간을 주니 옥녀부인은 먹은 척하고 버린다.
- ⑲ 옥녀부인이 잔치를 여는데 일곱 아들이 돌아온다.
- ⑳ 일곱 아들과 옥녀부인이 각각 칼날과 칼자루를 입에 물고 하늘에 죄를 물으니 일곱 아들의 입에서는 환생초가 피고 옥녀부인의 입에서는 피가 쏟고 죽어 여러 짐승으로 변한다.
- ㉑ 칠성님과 일곱 아들이 함께 가서 환생초로 매화부인을 되살린다.
- ㉒ 일곱 아들이 칠성신이 되고 칠성님과 매화부인은 각자 견우성과 직녀성이 된다.

이상이 김옥순본을 중심으로 해서 <칠성풀이>의 서사구성을 간략하게 정리한 내용이다. 태몽이 생략되거나 일곱 아들의 친모인 매화부인이 소박을 맞아 굶어 죽거나 생활고에 자살하는 등의 차이 정도만 있다. 친자 확인도 아예 없거나 부자간 피를 합쳐보는 것만 하거나 세 번에 걸쳐 시험을 하는 식으로 확장된다. 계모인 옥녀부인이 하늘의 시험에 피를 쏟고 죽은 뒤 변신하는 생물들이 두더지나 실뱀, 모기 등의 차이를 보이는 정도다. 마지막 신직을 배정함에서도 이본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일곱 아들이 칠성신이 되거나 삼신이 되기도 하고 칠성님은 견우성, 짚신고물, 짚신꾸부랭이, 칠성마지, 매화부인은 직녀성, 열시왕, 삼신제왕, 삼태성이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신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몇몇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서사구성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칠성님이 매화부인과 혼인한 뒤 아이가 없자 기자치성을 드리고 일곱 아이를 갖게 된다. 사람이 일곱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이유로 칠성님이 매화부인을 떠나 옥녀부인과 새로 혼인을 맺고 홀로 남은 매화부인이 일곱 아들을 키우게 된다. 일곱 아들이 자라서 아버지를 찾아 떠나자 매화부인은 그로 인해 죽고, 이때부

터 계모인 옥녀부인이 아버지 곁에 있는 전처 자식인 일곱 아들을 죽이려 꾀한다. 꾀병의 약으로 일곱 아들의 간을 요구했으나 금사슴이 나타나 대신 간을 주고, 이후 옥녀부인은 계략이 드러나 죽어 짐승으로 변하고 일곱 아들은 칠성남과 함께 친모 매화부인을 살린다는 게 전체적인 서사의 흐름이다.

호남지역의 〈칠성풀이〉가 친부가 친모를 소박하고 떠나는 데 비해 제주도의 〈문전본풀이〉는 친부가 떠나는 양상은 같지만 그 이유가 다르다. 다른 사람을 속이는 계모의 역할도 활발하며 일곱 아들 가운데 막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문전본풀이〉 역시 이본 간 호칭이나 신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서사의 구성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구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남선비와 여산부인이 일곱 아들을 데리고 가난하게 산다.
- ② 남선비는 무곡장사를 하러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간다.
- ③ 남선비는 오동고을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바둑 장기 놀이를 하는 데 홀려 재물을 탕진하고 초막에서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산다.
- ④ 여산부인이 남선비를 찾아 오동나라 오동고을에 온다.
- ⑤ 여산부인이 남선비의 초막을 찾아 부엌을 빌려 밥을 지어주고 자신이 여산부인임을 알린다.
- ⑥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이 찾아왔음을 알고 연못으로 유인해 빠뜨려 죽인다.
- ⑦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여산부인으로 변장하고 남선비와 함께 집으로 돌아간다.
- ⑧ 일곱 아들은 노일제대귀일의 딸의 변장을 간파한다.
- ⑨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꾀병을 앓는다.
- ⑩ 남선비가 병을 고치기 위해 문복장이를 찾아간다.
- ⑪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먼저 가서 문복장이로 변장한다.
- ⑫ 변장한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일곱 아들의 간이 약을 먹어야 낫다고 한다.
- ⑬ 남선비가 일곱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갈자 막내 녹디성인이 꾀를 내어 자신이 대신 형들의 간을 내어오겠다고 한다.
- ⑭ 일곱 아들이 산에 가서 잠이 들었는데 여산부인이 현몽하여 산돼지 간을 대신 가져가라 한다.
- ⑮ 녹디성인이 산돼지 간을 노일제대귀일의 딸에게 주고 몰래 먹지 않는 것을 훔쳐본다.
- ⑯ 녹디성인이 달려들어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묶고 지붕 위에 올라가 계모의 거짓을 폭로한다.
- ⑰ 남선비는 도망가다 정낭에 목이 걸려 죽고 노일제대귀일의 딸은 뒷간 쪽에서

목을 매어 죽는다.

- ⑱ 일곱 아들이 노일제대귀일의 딸 시체를 조각내니 해조류, 물고기, 조개, 굴뎡이, 전복, 각다귀, 모기로 환생한다.
- ⑲ 일곱 아들이 서천꽃밭에 가서 환생꽃을 가져다 여산부인의 시체를 찾아 희생시킨다.
- ⑳ 여산부인은 삼덕조왕이 되고 남선비는 정쌀의 신, 일곱형제는 오방장군과 앞뒤쪽 문신이 된다.

이것은 현용준이 채록한 안사인본을 중심으로 구성된 서사이다. <칠성풀이>와 비교할 때 혼인과 기자치성, 아들 출생이 없고 계모인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친모인 여산부인을 죽인다는 차이를 보여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친부와 친모가 헤어지는 이유가 다른데, <칠성풀이>가 자식을 많이 낳은 것이 원인이었다면 <문전본풀이>에서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친부가 곡식 장사를 하러 떠나는 것이 원인이다. 계모 노일제대귀일의 딸이 친부 남선비와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는 <칠성풀이>의 구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 피병을 통해 전혀 자식을 죽이려 했으나 친모가 보낸 동물을 통해 위기를 넘긴 일곱 아들이 계모를 징치하고 죽은 친모 여산부인을 살리는 것까지의 흐름이 유사하다. 이렇게 볼 때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는 기자치성과 심부담의 유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며 친모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계모의 피병 이후의 서사는 흡사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심부담의 경우에는 이미 서대석에 의해 <제석본풀이>의 화소와 일치한다고 지적된 바 있으며 <칠성풀이>가 호남지역의 대표적 무가이기에 <제석본풀이>의 화소가 이동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¹⁷⁾ 물론 심부담이 원래 <칠성풀이>에 존재했을 수도 있으나 그 화소가 전승지역은 다르지만 두 서사무가에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련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칠성풀이>는 <문전본풀이>와 서사구성에 있어 상당한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제석본풀이>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다.

17) 서대석, 위의 책, 351면. 이와 달리 심부담이 원래 <칠성풀이>에 존재했고 동부지역의 <제석본풀이>와 같이 <동명신화>와 연결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들었다. 그러나 <칠성풀이> 자체가 칠성의 유래로만 나타날 뿐 인간에게 어떤 기능을 갖는 신화인지 분명하지 않아 재고가 요청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형이 북부지역에서 전승되는 〈살풀이〉와 〈성신굿〉이다. 서남부지역의 〈칠성풀이〉와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와 비교할 때 그 서사구성이 가장 단순하다고 할 수 있다. 〈살풀이〉와 〈성신굿〉 서로도 서사구성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전자가 후자보다 더 간단한 편이다. 먼저 〈살풀이〉의 서사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해달왕님과 구실부인이 혼인을 한다.
- ② 구실부인이 아들 삼형제를 낳는다.
- ③ 구실부인이 출산 후 죽어 옥황에 올라가 물 낚는 사제가 된다.
- ④ 해달왕님이 매일부인과 재혼을 한다.
- ⑤ 매일부인이 아들 하나를 낳는다.
- ⑥ 매일부인이 전처의 삼형제를 죽이려고 피병을 앓는다.
- ⑦ 매일부인이 금전으로 천지복술과 지리말명을 매수해 해달왕님에게 인간의 간세 보가 약이 된다고 말하러 부탁한다.
- ⑧ 매일부인이 해달왕님에게 병에 대해 문점을 받으라고 시킨다.
- ⑨ 해달왕님이 천지복술과 지리말명에게 가서 문복을 한다.
- ⑩ 해달왕님이 전처 삼형제를 죽이려고 구실부인 묘 앞에서 삼형제와 만나기로 약속한다.
- ⑪ 삼형제가 구실부인 묘 앞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하니 옥황의 구실부인이 듣고 옥황상제에게 고한다.
- ⑫ 옥황상제가 선녀를 파견해 삼형제를 옥황으로 불러올려 사정을 파악한다.
- ⑬ 옥황상제가 해달왕님은 귀신정배를 보내고 매일부인은 육하살, 폐적살, 상문살, 백고살, 천상살 등을 먹고 매일부인의 세 살 아들에겐 홍역살을 먹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칠성풀이〉와 달리 기자치성이나 심부담이 없으며 바로 친부, 친모의 혼인부터 시작한다. 친모는 아들 삼형제를 낳은 뒤 바로 죽고 이후 계모가 들어와 아들 하나를 낳는다. 계모의 피병 이후 서사는 다른 것들과 유사하게 흘러가나 계모를 징계하는 부분이 다르다.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에서는 계모의 속임수가 탄로나고 전처의 자식들이 그녀를 징치하는 데 비해 이 자료에서는 옥황상제가 사정을 파악하고 바로 징치한다. 이것은 다른 이본들과 비교해 계모의 징치가 초월적 존재에 의해 간단하게 처리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계모의 자식 역시 함께 징치를 받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친모는 죽은 후

옥황에 있을 뿐 다시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처럼 부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성신굿>의 서사구성을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① 성신님이 청실부인과 혼인을 한다.
- ② 성신님이 벼슬을 얻어 승진하여 금천왕님이 되고 청실부인은 아들 일곱을 낳는다.
- ③ 청실부인이 우연히 득병하여 죽는다.
- ④ 금천왕님은 최씨부인과 재혼한다.
- ⑤ 최씨부인이 딸 삼형제를 낳는다.
- ⑥ 최씨부인이 피병을 앓는다.
- ⑦ 최씨부인은 친딸 삼형제를 시켜 천문박사를 매수한다.
- ⑧ 최씨부인이 금천왕님에게 천문박사에게 가서 문복하라 시킨다.
- ⑨ 금천왕님이 일곱 아들을 죽이려고 활과 화살을 들고 뒷동산에 데리고 간다.
- ⑩ 산중처사가 길을 막은 뒤 최씨부인의 음모를 폭로하고 일곱 아들은 서울로 몰래 보내며, 그 대신 멧돼지의 애를 내어 먹이도록 한다.
- ⑪ 멧돼지가 억울하다 하소연하나 금천왕님이 쏘아 애를 꺼낸다.
- ⑫ 최씨부인이 애를 먹는 척하며 버리고 쾌차한다. 버린 애들은 쥐며느리 밥, 바퀴 밥, 닭의 밥, 거름 보탬, 개미 밥, 가막 까치 밥, 물고기 밥이 된다.
- ⑬ 서울에 간 일곱 아들은 과거에 급제해 벼슬에 올라 고향으로 돌아온다.
- ⑭ 최씨부인이 범씨 하나 입에 물고 시루를 쓰고 숨자 일곱 아들이 찾는데, 최씨부인의 세 딸이 거짓말을 한다.
- ⑮ 일곱 아들이 최씨부인을 찾아 막내가 활을 쏘아 죽이니 최씨부인은 산돼지가 된다.
- ⑯ 산돼지가 된 최씨부인을 죽여 그 가죽으로 신발과 무녀 복으로 만들고 딸 삼형제는 죽어 접동새가 되었다.

계모의 피병과 그로 인한 전처 자식의 위기를 다른 이본들과 공통된 서사구성으로 전개된다. 다소 다른 점은 계모가 전처 자식의 애라고 알고 먹은 척하며 버린 것들이 다양한 생물들의 먹거리가 된다는 점이다. 한편 친모가 죽고 부활하지 않는 것은 <살풀이>와 일치하는데, <살풀이>에서는 죽은 친모가 천상의 존재가 되어 등장하지만 이 자료에서는 죽은 이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인지 일곱 아들의 위기를 구해주는 것은 친모와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 산중처사이다.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 <살풀이> 모두에서 죽은 친모의 환생이거나

아니면 직접 현몽하거나 옥황상제에게 하소연하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또한 아들이 계모를 징치하는 게 음모의 폭로 직후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하여 고향으로 돌아온 뒤에 벌어진다는 점도 다른 이본과 다르다.

지금까지 정리한 〈칠성풀이〉 유형 서사구성을 화소에 따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칠성풀이〉 유형 서사구성의 화소별 비교

| 화소 | 〈칠성풀이〉 | 〈문전본풀이〉 | 〈살풀이〉 | 〈성신굿〉 |
|---------------|--------|---------|-------|-------|
| 혼인 | ○ | | ○ | ○ |
| 기자치성 | ○ | | | |
| 아들 출생 | ○ | | ○ | ○ |
| 친부모의 소박 또는 분리 | ○ | ○ | | |
| 재혼 1 | ○ | ○ | | |
| 심부담 | ○ | | | |
| 친모의 죽음 | ○ | ○ | ○ | ○ |
| 재혼 2 | | | ○ | ○ |
| 계모의 피병 | ○ | ○ | ○ | ○ |
| 문복장이 매수 | ○ | ○ | ○ | ○ |
| 아들 살해 기도 | ○ | ○ | ○ | ○ |
| 동물의 희생 | ○ | ○ | | ○ |
| 음모의 확인 및 폭로 | ○ | ○ | ○ | ○ |
| 계모 징치 | ○ | ○ | ○ | ○ |
| 친모의 부활 | ○ | ○ | | |
| 신격 획득 | ○ | ○ | | |

친부의 재혼을 1과 2로 구분한 것은 친모가 가족에서 분리되는 게 소박당한 경우와 병사한 경우로 구별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 서사 전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병사의 경우 죽음 그 자체로 친모가 가족과 분리되지만, 소박의 경우 가족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특히 친부의 재혼이 친모의 죽음 전과 후로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한 것이다.

전체적인 화소의 구성은 그 수가 가장 많은 〈칠성풀이〉를 기준으로 삼았다. 그래서 〈칠성풀이〉의 경우 친모의 병사로 인한 재혼인 재혼 2를 제외하고 모든 화소를 다 갖고 있다. 이에 비교해 〈문전본풀이〉는 혼인과 기자치성, 심부담이

없다는 걸 볼 수 있다. 이것은 서두부터 이미 요약되어 친부와 친모, 일곱 아들이 함께 살고 있는 완전한 가족의 상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또한 심부담 대신에 친모가 친부를 찾아가는 것이 다른 것을 제외하면 계모의 피병 이하의 화소들은 모두 공통적이다.

〈살풀이〉와 〈성신굿〉은 친모의 병사로 인한 재혼인 재혼 2를 공유하며 동물의 희생 하나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하다. 이 차이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친모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졌는가 아니면 천상의 존재로 재등장하는가에 원인이 있다. 〈살풀이〉의 경우 친모가 천상의 존재가 되어 아들들의 하소연을 직접 듣고 초월적 존재에게 호소하여 계모 징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동물의 희생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화소의 유무만을 따지면 〈살풀이〉가 다른 것들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으나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에서 등장하는 동물 희생이 죽은 친모의 환생이나 도움이란 점에서 오히려 상관없는 산중처사가 도움을 주는 〈성신굿〉도 맥락상 차이를 가진다. 다른 세 유형에서는 동물 희생 또는 것처럼 아들들의 위기를 넘겨주는 역할이 친모와 관련되어 있지만 〈성신굿〉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살풀이〉에서 죽은 친모가 직접 등장하는 것은 계모 징치가 초월적 존재에 의해 간단하게 처리되면서 발생한 변이일 것으로 여겨진다.¹⁸⁾ 이렇게 볼 때 〈성신굿〉에 등장하는 산중처사가 원래 친모와 관련된 존재였다가 변이를 일으켰을 수 있다. 이는 친모의 도움이 동물 희생으로 나타나는 〈칠성풀이〉, 〈문전본풀이〉의 내용이 〈살풀이〉에서는 친모의 도움만으로, 〈성신굿〉에서는 동물 희생만으로 절반만 표현됐다는 걸 의미한다. 즉, 북부지역의 것들이 몇몇 화소가 탈락하여 파생된 이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며 친모의 병사 역시 분리 화소가 빠지면서 변화된 형태일 것이다.

친모의 부활이란 화소를 보면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을 하나로, 그리고 〈살풀이〉와 〈성신굿〉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 전자에서는 모두 죽은 친모가 부활하는 것에 비해 후자에서 친모는 죽은 채로 끝난다. 만일 이 서사무가들이 “가정의 탄생, 가정의 시련, 시련의 극복, 가정의 완성이라는 서사적 전개를 갖

18) 서대석은 이와 관련하여 구연자의 기억이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했다(서대석, 위의 책, 339면).

춘 가정신화”라는 견해¹⁹⁾나 아들들의 “신적 능력을 입증하고 어머니의 이타적 모성애를 삶의 영역으로 구원”하는 것²⁰⁾이라면 북부지역의 서사무가들은 완성되지 못하거나 구원되지 못한 것들이 되어버린다.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의 어머니는 부활하여 부모와 자식이라는 가정의 완성 또는 모성애의 구원이 이뤄진 것에 비해 북부지역의 것들에서 어머니는 돌아오지 못하고 파괴된 채 멈추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역시 북부지역의 서사무가들이 파생된 이본 형태라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동물의 희생으로 친모의 도움이 드러나고 그녀가 부활하는 〈칠성풀이〉, 〈문전본풀이〉를 중심으로 고찰해야 한다. 특히 표-1을 통해 보면 친모 부활 화소는 재혼의 원인이 친모의 죽음이 아닌 소박 또는 분리일 때 등장한다. 즉 앞서 설명한 것에 따라 재혼 1의 경우에 친모가 부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모의 부활을 친모의 죽음이 아닌 친모의 소박 또는 분리와 관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칠성풀이〉 유형 서사무가의 내용을 비교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친부모의 소박 또는 분리 화소가 친모의 부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것은 심부담이나 친모의 친부 탐색 화소로도 연결이 된다. 친부의 재혼 이후에 전개되는 계모와 전처 자식들 간의 서사들은 대부분의 유형에서 공통으로 등장한다. 즉, 계모의 피병, 문복장이 매수, 아들 살해 기도, 동물 희생, 음모의 확인 및 폭로, 계모 징치까지의 화소 구성이 거의 비슷하다. 단지 〈살풀이〉에서 동물 희생이 나타나지 않으나 친모를 통한 구원이란 점에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서사가 모든 이본에 공통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이 내용이 매우 중요하거나 혹은 이 서사무가의 뼈대가 된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 외로 존재하는 화소들은 표-1에서 볼 수 있듯 서로 다른 점이 많다. 〈살풀이〉, 〈성신굿〉이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서사 이외에는 그다지 큰 내용이 없는데 비해 〈칠성풀이〉, 〈문전본풀이〉는 친부모의 소박 또는 분리와 친모의 부활이

19) 서대석, 위의 책, 352면.

20) 이원영, 앞의 논문, 197면.

라는 공통된 내용을 추가해 고려해야 한다. 다시 정리하면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을 주요하게 분석하면서 거기에서 나아가 친부모의 소박 또는 '분리'와 친모의 '부활'이 결합한 경우까지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황금양 모피 기원담과의 비교를 통해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가진 의미를 탐색하고 거기에서 확장하여 친모의 분리와 부활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3. 전가되는 희생과 계모의 대속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구조는 모든 이본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걸 앞장의 화소 정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계모는 피병을 앓고 문복장이를 매수하여 전처 자식을 살해하려고 하며, 친모의 도움인 동물의 희생을 통해 전처 자식들이 살아나고 계모의 음모가 폭로되어 징치되는 구성이다. 다소 복잡한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본들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것이 이 서사무가 유형의 중요한 부분임을 암시한다.

그런데 이 서사무가를 가정신화로 해석할 경우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그것도 서로 죽이려 하고 죽이는 극단적인 갈등이 그 주제를 표현하는 데 적합한가 의문이다.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해서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친모와 그 자식들에 치우친 감상이라 할 수도 있다. 친모와 그 자식들을 중심에 놓고 보면 친부와 계모가 만든 가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가정을 위해 다른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는 것은 아무리 가부장제의 영향이라고 해도 가정신화로서 의문점이 남는다. 게다가 사실 친부의 역할은 친모를 버리는 것 이외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나타나지도 않는다. 전처 자식을 살해하려는 것이 그나마 친부가 맡은 또 하나의 역할인데 이 역시 계모의 부추김에 떠밀려 하는 행동이다.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가부장적 가정신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동시에 모든 이본에 등장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 한다면, 다

른 주제를 표현하면서도 서사의 구성이 유사한 다른 자료와 비교하여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은 서사무가만이 아니라 “약이 되는 아들의 간” 설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²¹⁾ 그러나 주제적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서사 구성까지 유사한 자료는 서론에서 언급했던 황금양 모피의 유래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아손과 아르고호의 모험에 등장하는 황금양 모피의 기원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료에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매우 유사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관련 기록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아이올로스의 아들 가운데 아타마스는 보이오티아를 다스리며 네펠레와의 사이에서 아들 프릭소스와 딸 헬레를 낳았다. 그리고 이노와 재혼한 그는 두 아들 레아르코스과 멜리케르테스를 얻었다. 이노는 네펠레의 자식들에게 음모를 꾸미는데 여인들을 설득하여 밀알을 부게 했다. 여인들은 밀알을 구하여 남자들 몰래 그렇게 했다. 볍은 밀알을 뿌린 대지에서는 예년과 같은 소출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아타마스가 델포이로 사절단을 보내 어떻게 해야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했다. 이노는 사절단을 설득하여 제우스에게 프릭소스를 제물로 바쳐야 불모의 상태가 그치리라는 신탁이 내려졌다고 말하게 했다. 아타마스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의 강요에 못 이겨 프릭소스를 제단으로 데리고 갔다. 그러나 네펠레가 프릭소스를 딸과 함께 낚아채더니 그들에게 헤르메스한테서 받은 황금 양털의 숫양 한 마리를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숫양을 타고 하늘을 지나고 육지와 바다를 건넜다. 그러나 그들이 시게이온과 케르소네소스 사이에 있는 바다 위에 이르렀을 때, 헬레는 그만 바닷물 속으로 미끄러졌다. 그래서 그녀가 익사한 바다는 그녀의 이름을 따 헬레스폰토스라 불린다. 한편 프릭소스는 콜키스인들의 나라에 닿았다. 그들의 왕 아이에테스는 헬리오스와 페르세이스의 아들로 키르케와 파시파에의 오라비인데 파시파에는 미노스와 결혼했다. 아이에테스는 프릭소스를 환대했고 자기 딸 중 칼키오페를 아내로 주었다. 프릭소스는 황금 양털의 숫양을 피난의 신인 제우스에게 제물로 바치고 양 모피는 아이에테스에게 주었다. 그러자 아이에테스가 그것을 아레스의 임원(林苑) 안에 있는 참나무에 단단히 걸어두게 했다.²²⁾

21) 김혜정, 2017 『한중 약 되는 아들의 간 설화의 전승 양상 비교 연구』 『국제어문』 73에서 한국과 중국에서 전승되는 설화의 유형을 비교했는데, 과거급제형, 혼인확대형, 형제상봉형, 칠성풀이형, 송아지아들형의 5개 하위 유형이 있다고 정리했다.

22) 아폴로도로스(천병희 옮김), 2004 『원전으로 읽는 그리스신화』, 숲, 63-64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먼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에서 볼 수 있었던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과 같은 내용 구성을 발견할 수 있다. 친부인 아타마스가 네펠레를 버리고 계모인 이노와 재혼하고, 계모는 전처 네펠레의 자식들인 프리소스와 헬레를 죽이기 위해 델포이 신탁을 받으러 가는 사자들을 설득하여 거짓 신탁을 받게 한다. 이에 친부 아타마스가 전처 자식들을 죽이려 하자 친모인 네펠레가 나타나 그녀의 자식들에게 황금 양털을 가진 숫양을 통해 탈출하게 해주었다. 여동생 헬레는 중간에 죽었으나 아들 프리소스는 콜키스로 날아가 정착한 뒤 제우스에게 황금양을 제물로 바치고 그 모피는 그곳의 왕에게 선물했다는 것이다. 인용문에는 생략했으나 이후 친부와 계모는 신의 노여움을 사서 계모와 그 자식들은 모두 죽고 친부는 나라에서 쫓겨나 방황하다 다른 곳에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

이 이야기의 서사 구성은 계모의 피병으로 시작하여 문복장이 매수와 아들 살해 기도, 동물의 희생, 음모 폭로와 계모의 징치로 이어지는 <칠성풀이>의 것과 매우 유사하다. 문복장이 매수는 델포이 신탁을 받으러 가는 사자를 설득하는 것에 대응되며 전처 자식을 살해하려는 것은 동일하고, 친모와 관련된 동물이 등장하는 것도 유사하다. 음모 폭로는 보이지 않지만 계모가 징치되는 결말은 부합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부분들의 공통점은 두 자료를 비교할 타당성을 제기한다.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와 다른 화소를 가진 부분을 통해서는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칠성풀이> 유형에서는 전처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계모가 피병을 앓는 것으로 나오는데, 황금양 모피 기원담에서는 계모가 몰래 종자를 볶아 죽여서 기근이 온 것처럼 속인다. 피병이 실제 병이 든 것이 아닌 것처럼 몰래 종자를 죽여 든 기근은 실제로 온 기근이 아닌 것과 같다. 거짓을 통해 계모는 매수한 문복과 신탁을 받게 하여 전처 자식들을 약 또는 제물로 바치는 것이다. 이것은 전처 자식을 죽이려 하는 외적인 목표가 병과 기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전처 자식의 간이나 애가 병을 치료하는 약이 된다는 것보다는 기근을 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이 더 어울린다. 가뭄 따위로 기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을 제물

로 바쳐 해결하려는 것은 고대에 그다지 보기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황금양 모피 기원담의 다른 내용의 후일담이 전해진다. 고대 그리스를 공격했던 크세르크세스가 라피스티아의 제우스 신전의 안내인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하는데, 전처 자식들이 탈출하자 나라 사람들이 왕, 즉 친부인 아타마스를 속죄제물로 희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손자 또는 헤라클레스가 그를 구출해서 죽지 않았다고 한다. 아타마스 왕이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세대마다 아타마스 가문의 장남은 라피스티아의 제우스에게 제물을 바치던 장소인 공회당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어김없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신의 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가문 사람 중 상당수가 그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외국으로 달아났다는 것이다.²³⁾ 그는 재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이나 왕자를 살해하는 풍습이 고대 세계 널리 있었다고 하며 또는 장남을 바치기도 했다고 정리했다.

이처럼 왕자 또는 장자살해의 풍습은 가까운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묵자』에 보면 노양문군(魯陽文君)이 묵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장면이 나온다.

초나라의 남쪽에 사람을 먹는 나라가 있어 그 나라에서는 장자가 태어나면 날로 먹고 그것을 일러 동생에게 좋다고 한다. 맛있으면 그 임금에게 바치는데 임금이 기뻐하며 그 아버지에게 상을 내린다고 하니 어찌 나쁜 풍속이 아닌가?²⁴⁾

장자를 살해하여 부모가 먹으면 동생에게 좋다고 하는 것은 프레이저가 언급한 경우 중 아이가 아버지의 영기나 생명력을 흡수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관습에 해당할 것이다.²⁵⁾ 장자를 먹음으로써 아버지는 그 영기와 생명력을 흡수하여 더욱 왕성한 기운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리하여 뒤에 태어날 동생에게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흐름이 임금에게까지 연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살해된 장자의 생명력을 임금이 흡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

23) 프레이저(이용대 옮김), 2003 『황금가지』, 한겨레신문사, 331-333면.

24) 『묵자』 『노문(魯問)』 제49, “魯陽文君語子墨子曰. 楚之南. 有啖人之國者橋. 其國之長子生. 則鮮而食之. 謂之宜弟. 美則以遺其君. 君喜則賞其父. 豈不惡俗哉.”

25) 프레이저, 앞의 책, 341면.

버지에게 상을 내리는 것이다.

기근과 같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책임을 지는 것은 원래 왕이었을 것이다. 상나라의 탕왕도 가뭄이 심하자 직접 상림(桑林)에 가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머리 카락과 손톱을 잘라서 스스로 희생이 되었다고 한다.²⁶⁾ 상나라가 멸망한 뒤 송(宋)나라에서도 가뭄이 계속되면 왕이 동일한 일을 했으며 유가(儒家)는 무축(巫祝) 출신으로 기우제를 지낼 때 화형당하는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²⁷⁾ 부여의 풍습에서도 장마나 가뭄으로 오곡(五穀)이 영글지 않으면 왕에게 책임을 물어 왕을 교체하거나 죽여야 한다고 했다.²⁸⁾ 프레이저는 이러한 왕 살해의 관습이 점차 이어지다 왕의 아들, 특히 장자에게 그 위협과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²⁹⁾

황금양 모피의 기원담이 나라에 재난이 닥쳤을 때 장자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묘사하는 이야기라는 것은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의 계모와 전처 자식간의 갈등을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준다. 황금양 모피 기원담에서 계모는 기근을 불러온 존재이다. 그녀가 짝이 자라지 못하도록 밀의 종자를 볶아 죽였기 때문이다. 한편 계모는 델포이 신탁을 받으러 가는 사자들을 설득해 왜곡시켜 전처 자식들을 죽이고자 했다. 원래라면 기근 해결을 위해 왕이 직접 신에게 제물로 바쳐져야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제물을 바꿔치기 해서 신을 속이는 행위라 말할 수 있다.³⁰⁾ 계모가 신탁을 왜곡함으로써 이러한 대리제물로 신을 속이

26) 『여씨춘추(呂氏春秋)』 『계추기(季秋紀) 순민(順民)』 “昔者湯克夏而正天下，天大旱，五年不收，湯乃以身禱於桑林。曰余一人有罪，無及萬夫，萬夫有罪，在余一人，無以一人之不敏，使上帝鬼神傷民之命。於是翦其髮，磨其手，以身爲犧牲。”

27) 시라카와 시즈카(이경덕 옮김), 2008 『주술의 사상』, 사계절, 114-115면.

28) 『삼국지』 권30, 『위서』 30 부여전 “舊夫餘俗，水旱不調，五穀不熟，輒歸咎於王，或言當易，或言當殺。”

29) 프레이저, 앞의 책, 342면.

30) 프레이저, 위의 책, 334-335면에서 프레이저는 옛날에는 테살리아와 보이오티아에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 라피스티아의 제우스라고 하는 신에게 왕을 제물로 바치던 왕조가 있었는데 그 치명적 책무를 자기 자식들에게 전가하는 바람에 왕자가 정식으로 제단에 바쳐지는 운명을 지게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잔인한 풍습이 많이 완화되어 숫양을 왕자 대신 제물로 쓰게 되었다고 추리했다. 하지만 만약 왕자가 경솔하게 제물을 바치던 공회당에 발을 들여놓아 대리제물을 너그럽게 눈감아주던 신의 눈에 띄게 되면 중지된 옛 의무

는 행위의 책임 역시 계모에게 전가되었다. 친부인 왕은 계모에게 기근과 대리제물의 책임을 떠밀고 그의 위험한 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신의 노여움을 사서 계모와 자식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데, 친부인 아타마스의 정신이 돌아서 계모 이노의 아들 중 하나인 레아르코스를 활로 쏘아 죽이고 남은 아들 벨리케르테스도 죽이려 했으나 어머니 이노가 데리고 도망치다가 둘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결국 왕가의 사람들이 제물이 된 것인데 아버지인 아타마스가 죽이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즉, 아버지 왕 대신 그 자식이나 왕가의 사람들이 제물로 바쳐졌고 그 대상이 계모와 그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계모에게 기근과 대리제물의 원인이 있기에 서사 내적으로는 책임을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자 또는 장자 살해 풍습을 통해 바라보면 계모, 즉 새로이 가족에 편입된 존재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고 대속하는 모양새가 된다. 계모의 죽음을 통해 대리제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근도 해결이 되는 것이다.

계모가 기근의 책임을 대속하는 존재라는 것은 〈칠성풀이〉 유형 설화에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계모의 징치가 간단하게 처리된 〈살풀이〉를 제외한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 〈성신굿〉 모두에서 계모가 죽어서 다양한 생물로 화생(化生)하거나 계모가 버린 애가 여러 생물의 밥이 되는 화소가 등장한다. 물론 모기나 각다귀 등의 해충으로 환생하기도 하지만, 생물의 밥이나 해산물 등으로 환생하는 것과 공존하는 것을 살필 때 이것은 징벌적 의미가 추가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시체화생형 화소는 계모의 죽음이 기근을 해결하는 맥락 속에서 시체화생형 곡물기원의 알레고리로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모가 가진 이러한 화생의 이미지에 주목하여 이미 시체화생형 곡물기원 여신과 비교되기도 하였다.³¹⁾

가 온전히 되살아나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 했다.

31) 김은희, 2014 『〈문전본풀이〉와 〈하이누벨레신화〉의 비교 연구: “음식기원여신” 모티브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28; 김정호 외, 2014 『한일 사체환생신화 연구: ‘노일제대귀일의 딸’과 ‘오케츠히메노카미’를 중심으로』 『배달말』 54, 118-119면에서는 일본의 시체화생형 곡물기원 신화의 주인공 오케츠히메노카미와 노일제대귀일의 딸을 동질적인 신성으로 비교하면서 후자가 축신으로 좌정한 것 역시 작물의 풍요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할 때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에서 계모와 전처 자식 간 갈등 내용은 고대에 있었던 왕의 살해,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진 왕자 살해의 의례와 큰 상관성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시체화생형 곡물기원 여신의 신성을 가진 계모를 끌어들이 기근 해결과 왕자 살해라는 대리제물의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전승되는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는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지 않다. 가정신화로 이야기 될 정도로 가정 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나라 전체의 문제였던 기근이란 계모의 속임수가 피병이라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되면서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고, 이로 인해 가정의 울타리 내로 좁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함부로 추측하기는 어려우나 기근과 같은 국가적 문제해결에 인신공양과 같은 잔혹한 방법을 점차 사용하지 않게 됐기 때문은 아닌가 한다.

〈칠성풀이〉 유형 서사무가에서는 이와 같은 인신공양뿐만 아니라 동물의 희생도 거의 공통으로 등장한다. 날개 달린 황금양과 같은 동물들이 금사슴, 멧돼지로 나타나는데 친모가 환생했거나 보내주는 존재들이다. 사실 이 서사에서 실제 희생양이 되는 것은 친모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이 동물희생이 가지는 의미는 기근과 같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한다. 황금양 모피 기원담에서 황금양은 전처의 자식 프릭소스를 태우고 바다를 건너 콜키스에 데려다주고 그곳에서 희생양이 된다. 그런데 이 콜키스는 흑해 동북쪽 연안에 있었다는 전설적인 왕국으로 서기전 7세기부터 그리스의 곡물창고 역할을 했다고 한다.³²⁾ 즉, 콜키스의 풍요를 동물 희생에 의한 것으로 드러내고 있다.

왕가의 여성이 제물이 되는 것은 앞서 소개한 황금양 모피 기원담과도 관련이 있는 의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프레이저가 소개한 오르코메노스란 곳에서는 왕족 가문의 여자를 제물로 삼았다고 한다.³³⁾ 문제는 이 도시를 황금양 모피 기원

32) Carlos Ramirez-Faria 외, 2007 *Concise encyclopedia of world history*, Atlantic Publishers & Distributors, p.146.

33) 프레이저, 앞의 책, 333면. 그는 후대에도 이런 야만적인 관습이 행해졌다고 하면서 오르코메노스에서 일어난 인간제물 사건을 소개했다. 이 오랜 도시의 한 가문의 여자들은 '파괴자'란 이름으로 불리면서 아그리오니아 제전이 열릴 때 디오니소스 사제가 그녀들을 붙잡으면 칼로 죽일 권리가 있었다. 이 가문은 바로 오르코메노스의 유명한 옛 왕인 미

담의 친부 아타마스가 다스렸다고도 하고 이 도시 인근에 있는 라피스티오스 산에 전처 자식인 프리소스와 헬레를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라피스티아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 이것은 왕가의 여성 또한 인간제물이 될 수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의문이 하나 생긴다. 이 이야기에서 희생양이 되는 것이 두 가지나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는 계모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설명한 친모를 상징하는 동물이다. 하나의 이야기 내에 굳이 두 번의 희생제외가 등장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도 계모와 친모를 상징하는 동물로 두 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바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왕가의 여성 또한 인간제물이 되었고 그럴 경우 친모가 제물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 이 경우 서사 내적 논리를 떠나 고려한다면 친모를 상징하는 동물이 희생양이 되는 것만 등장하는 게 타당하게 된다.

그런데 앞서 텍스트 분석했을 때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에 더하여 친부 모의 소박 또는 분리, 그리고 친모의 부활이 결합한 경우가 있었다. 서남부지역의 〈칠성풀이〉와 제주도의 〈문전본풀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자료들에서 친모의 죽음은 재혼 1, 즉 친부가 친모와 헤어진 뒤 행해지는 재혼 이후에 등장한다. 〈칠성풀이〉에서는 친모를 떠난 자식들을 그리워하다가 죽게 되며 〈문전본풀이〉에서는 계모가 유인하여 직접 살해한다. 이 두 사례에서 공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친모가 죽기 전에 가족들로부터 분리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분리되어 사라진 친모의 자리를 계모가 차지한다.

이것은 계모가 친모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대신 인간제물이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제물을 바치는 의례의 변화 형태 가운데 한 가지를 시사한다. 인간제물이 갖는 치명적인 점 때문에 희생양을 가까운 가족에서 점차 타인에게 전가하는 식으로 의례가 변화해 갔다. 그렇게 변화한 의례 중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에서 친모가 분리되어 죽은 후 부활하는 서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있다.

뉴질랜드의 몇몇 지방에서는 대속의식을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는데, 한 사람에게 어떤 의식을 행하면 그것을 통해 부족의 모든 죄가 그에게 옮겨간다고 믿

니아스의 후손이라고 한다.

었다. 위급한 사태가 닥치면 마니푸르의 라자는 범죄자에게 죄를 떠넘기고 그 대가로 사면해주었다. 라자와 그의 부인이 화려한 옷을 입고 광장에 세워놓은 구조물 위에서 목욕재계하면 범죄자는 그 아래에 웅크리고 있으면서 흐르는 물에 적셔졌다. 물을 통해 죄가 범죄자에게 전가된다는 사고이다. 의식이 마무리되면 라자와 부인은 화려한 옷을 대리인, 즉 범죄자에게 넘겨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백성들과 어울려 놀다가 밤이 되면 은신처로 숨어 일주일가량 격리됐다.³⁴⁾

이 사례는 왕과 왕비가 제물의 역할을 범죄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제물 역할을 전가한 뒤에 은신처에 숨는다는 점인데, 원래 제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눈에 띄지 않아야 그 역할을 전가할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앞서 소개했던 사례에서 왕자가 숫양을 대리제물을 받던 라피스티아의 제우스의 눈에 띄면 바로 제물이 된다는 이야기에서도 대리인을 내세우고 숨어야 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칠성풀이>나 <문전본풀이>의 친모의 행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할 수 있다면, 친모의 분리와 죽음, 부활은 대리제물을 세운 후 숨은 후 다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친모를 상징하는 동물의 희생과 계모의 징치, 곧 대속이 겹쳐 나타나는 것은 사실 친모가 제물이 되어야 했으며 그 대신 계모가 제물이 되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면 계모가 등장하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대속하는 대리인은 왕의 자격으로 죽어야 해서 한 시기 동안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다.³⁵⁾ 따라서 친모의 대속자는 어느 시간 동안 그 가족의 어머니로서 살아야 한다. 계모는 그 이름 그대로 친모 대신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존재이며 그러하기에 어머니로서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에 등장하는 계모가 단순한 악녀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 전처의 자식뿐만 아니라 전처까지 포함한 한 가정을 대속하여 제물이 되는 희생양이며 작물의 풍요를 담당하는 신성한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모든 이본에서 주요하게 등장하는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은 왕과 왕을 대속할 자격이 있는 왕자 대신 계모가 제물이 되는 것이란 의례

34) 프레이저, 위의 책, 647면.

35) 프레이저, 위의 책, 751면.

상의 의미를 지니었다. 나아가 친부모가 분리되고 이후 친모가 부활하는 서사가 결합한 서남부지역의 〈칠성풀이〉와 제주도의 〈문전본풀이〉는 계모가 전처까지 대속하는 역할을 떠안고 있다.

이 해석은 그 방증으로 북부지역의 〈살풀이〉, 〈성신굿〉에서 동물 희생이 등장하지 않거나 등장하더라도 친모가 아닌 제삼자인 산중처사가 동물 희생의 배후로 등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계모의 입장에서 전처의 대속을 하지 않는다면, 친모가 원래 제물이 돼야 했다는 걸 상징하는 동물 희생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예 동물 희생 화소가 빠지거나 등장하더라도 친모와의 상관성은 없는 것이다.

4. 결론

지금까지 〈칠성풀이〉 유형 서사무가는 주로 가정신화로 해석됐다. 이야기의 소재나 사건 자체가 가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며 목적이 자손의 번창이나 가정의 안녕을 위한 것이기에 이러한 해석 자체에 무리가 없다. 그러나 많은 신화가 가족 관계를 기표로 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설명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족 내의 사건이라고 해서 가정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를 지닐 가능성이 탐색할 필요성도 있다.

여러 지역에 전승되는 것들을 서사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북부지역의 〈살풀이〉, 〈성신굿〉과 서남부지역의 〈칠성풀이〉, 제주도의 〈문전본풀이〉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었다. 모든 이본에서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주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데 비해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에는 친부모의 소박 또는 분리, 그리고 이와 연결되는 친모의 부활이라는 화소가 추가되어 있었다. 따라서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갖는 의미를 먼저 탐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친부모의 분리와 친모의 부활도 해석을 시도했다.

주요 사건인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진 고대 그리스의 황금양 모피 기원담과 그와 관련된 의례를 통해 가정신화의 범위를 벗어

난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다. 황금양 모피 기원담은 도시에 찾아온 기근 해소가 주제였으며 그것을 인간제물을 바치는 의례로 해결하려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특히 원래 기근 해소의 책임이 있는 왕을 대신하는 왕자 살해의 의례의 흔적이 엿보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왕이나 왕자 대신 계모로 나타난 왕가의 여자가 기근 해소를 위해 대속하여 희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렇게 기근 해소, 즉 작물의 풍요를 위해 대속하는 존재이기에 그녀에게는 시체화생형 곡물기원 신화의 알레고리들이 붙어 있었다.

〈칠성풀이〉와 〈문전본풀이〉에 보이는 친부모의 분리와 친모의 부활은 계모의 대속 범위가 친모, 즉 계모의 입장에서는 전처까지 확장됐다는 걸 보여준다. 대속을 할 때는 원래 제물이 되어야 할 존재는 신으로부터 숨어있어야 하기에 친모는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어 죽음으로 숨어있다가 계모가 죽어 대속이 끝나자 부활하여 다시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친모 대신 제물이 되어야 하기에 그 자격을 위해 대속자는 계모로서 서사에 등장한다.

〈칠성풀이〉 유형의 서사무가를 그 소재에 따라 가정신화로 국한하지 않고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한 결과 그간 악녀로 읽히던 계모의 존재가 오히려 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대속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대에 인간을 제물로 바치던 의례를 통해 바라볼 때 그녀는 가정의 파괴자가 아니라 희생양으로서 가정의 풍요와 번창을 약속하는 신성한 존재였다.

주제어 : 칠성풀이, 문전본풀이, 계모, 황금양 모피, 희생의례, 시체화생형 곡물기원, 대속자

투고일(2022. 1. 19), 심사시작일(2022. 1. 27), 심사완료일(2022. 2. 14)

〈Abstract〉

The Sacrificial Ritual and Redemptor Inherent in the
〈Chilseongpoori〉 Type Shamanic Epic

Lee Jooyoung*

So far, 〈Chilseongpoori〉 type Shamanic Epic has been interpreted mainly as a family myth. However, considering that many myths use family relationships as symbols to explain various themes, since it is a family incident, it is not displayed only by talking about the family. There is also a need to explore possibilities that have different meanings.

W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type of story, it is roughly divided into Salpoori and Sungshingut in the northern region, Chilseongpoori in the southwestern region, and MunjonBonpoori in Jeju Island. In all versions, the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child of the ex-wife appears in a major event. For Chilseongpoori and MunjonBonpoori, the separation of the parents and the resurrection of the real mother were added.

The conflict between the stepmother and the child of the ex-wife was compared to the story of the origin of the golden fleece in ancient Greece, which is similar in content. The story of the origin of the golden fleece is about eliminating famine in the city, and trying to solve the problem with a ritual of human sacrifice. The story shows ritual traces of the murder of a prince on behalf of the king, who is responsible for resolving famine, was interpreted as being replaced by a royal woman represented by stepmother. She had an allegory of the Hinuwelle type, because she was a redemption for the abundance of crops.

The separation and resurrection of the real mother shows that the range of redemption of the stepmother has been extended to the real mother. When redeeming, the original offering must be hidden from God. So the real mother was separated from her family

* Instructor, Emergency Medical Service Department Seojeong University.

and hid to death, but when stepmother died and the redemption was over, she was revived and redisplayed. The stepmother, who had been read as a wicked woman, could be read again as a redeptor for a family. When interpreted as an ancient human sacrifice ritual, the stepmother was a sacred being who promised family affluence and prosperity as a sacrifice.

Key Words : *Chilseongpoori*, *MunjonBonpoori*, The stepmother, The Golden fleece, Sacrificial rites, The Hinuwelle type, Redeptor